

HSD엔진 ‘2018 동반성장 품질포럼’ 개최

132개 협력사 대표 초청...“힘든 상황 함께 극복” 다짐



고영열 사장 및 협력사 대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HSD엔진 동반성장 품질포럼'이 열리고 있다.



동반성장 품질포럼에서 인사말 하는
고영열 HSD엔진 사장

HSD엔진은 지난 7월 창원외의 풀만 엠베서더호텔에서 132개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2018년 동반성장 품질포럼'을 개최하고 상호 신뢰 강화 및 협력 의지를 다졌다.

1부 행사에서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 10개사를 시상하고 전년도 품질실적과 올해 추진할 품질전략을 공유했다. 2부 행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박사의 조선해운 시황 및 전망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동반성장 대상은 유성기계공업(주), 금용기계(주), 우암기계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현진소재(주), (주)한국엔지니어링, 경남기술(주), 경보산업(주), (주)문수기업, (주)세나코, (주)삼정이앤더블유가 받았다.

고영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기업과 협력사는 오랜 기간 선박 엔진이란 특수분야에서 함께 땀 흘려온 상생협력의 동반자"라며 "단결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HSD엔진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혁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협력사 80% 이상이 국가에서 품질을 관장하는 싱글PPM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싱글PPM은 불량품 수를 생산제품 100만 개 가운데 10개 미만으로 줄이자는 무결점 생산 운동이다. HSD엔진 협력사의 싱글PPM 품질인증 수준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HSD엔진 협력사가 국무총리표창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져왔다.

두산엔진에서 올 6월 새 이름으로 출범한 HSD엔진은 조선 산업의 핵심 기자재인 대형 선박용 디젤 엔진 제작과 디젤 엔진을 이용한 내연 발전소 건설 전문 업체로, 경남 창원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❶